



특 | 기 | 획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나만을 위한 교육'으로

고교학점제의 이상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이미 미국과 핀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됐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새로운 교육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대한민국이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을 중심에 두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교육시스템에서는 학생의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이수가 가능했다면 제도도입 이후 교육시스템에서는 학생이 목표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때 과목 이수가 인정된다.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과거 한 반에 20~30명 정도 있던 학급은 10명~15명 내외의 학생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바뀌고, 그룹별로 담임교사를 두어 학습관리와 진로 및 학업 상담 등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변화된다. 고교학점제 연구 대상 학교인 경기 갈매고의 경우, 1학년은 담임교사 1명이 25명의 학생을 담당하여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학급 시간표로 운영을 하고 2~3학년은 교사 1명당 13~15명의 학생 그룹을 담당하여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 시간표로 운영한다.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시기상조라고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그들은 이 제도가 과도할 정도로 이상적이며 그 이유로 교원 부족과 장소 부족을 지적한다. 그들은 고교학점제의 목표인 '학생 개개인에 맞춘 교육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교원과 교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사와 교실이 부족하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학생들은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농어촌 학교에 아주 큰 문제로 작용해 도시와 농어촌 학교 간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박하는 입장 역시 존재한다. 그들은 정부가 교원 부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로 임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고교 3~5곳을 묶어 '공유 캠퍼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수 신청 과목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22명의 순회교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에 따라 배치 확대를 검토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제도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아직 보완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런 고교학점제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 학부모 인터뷰를 해보았다. 인터뷰를 해본 결과 사람들은 대다수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학부모들도 "단조롭고 획일화된 고교 교육을 좀 더 실용적이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자유로운 수업 선택을 하므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대학 진로나 향후 직업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비록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팽팽하지만 경쟁 중심의 기존 교육 시스템과 다른 고교학점제가 좋은 취지인 것은 분명하다. 이 고교학점제가 교육부의 취지대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자신에게 맞춰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실행되길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손예준, 안혜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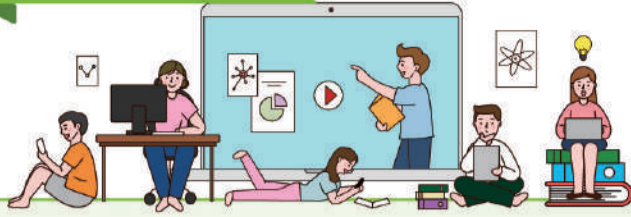
CONTENTS



[1면 / 기획]	고교학점제의 이상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7면-1 / 스포츠연예부]	온라인과 스포츠의 만남, e스포츠
[2면 / 청소년의눈]	청소년 전자기기 사용 실태조사	[7면-2 / 개인]	배우 윤여정의 오스카 여우조연상이 특별한 이유는?
[3면-1 / 교육부]	경기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 학교 밖에서 청소년의 꿈을 키워준다고?	[8면-1 / 개인]	플라스틱의 배신과 플라스틱 방앗간
[3면-2 / 개인]	청소년 자원봉사, 모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8면-2 / 개인]	이런 세금이 있다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색 세금
[4면-1 / 사회부]	바로알자, 화성시 청소년 무상교통 시스템	[9면-1 / 개인]	비만에 노출된 청소년, 이대로 괜찮을까?
[4면-2 / 개인]	떠오르는 교통수단, 전통키보드 앞으로의 방향은?	[9면-2 / 개인]	장애인 복지, 아직도 부족하다?
[5면-1 / 개인]	생명과 기업 이윤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	[10면-1 / 개인]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직업
[5면-2 / 개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픔 없는 세상을 위한 예방법은?	[10면-2 / 개인]	동북공정을 아시나요?
[6면-1 / 문화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문화	[11면-1 / 개인]	공기청정기, 잘못 알면 역효과를 불러온다?
[6면-2 / 개인]	지금은 코로나시대,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로 여행을 떠나볼까?	[11면-2 / 개인]	소방관 지키는 착한 가방, 119REO
		[12면 / 홍보]	청소년이 행복할 지도



청소년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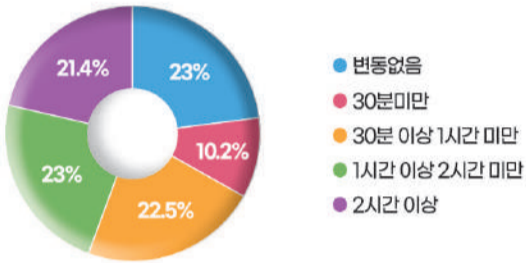


청소년 전자기기 사용 실태조사

응답자 소개 화성시 관내 청소년 총 187명 (여자: 124명/남자: 63명)
 14~16세(중학생): 161명 / 17~19세(고등학생): 26명
응답 기간 2021.05.29 ~ 06.04
응답 방법 구글 폼 (온라인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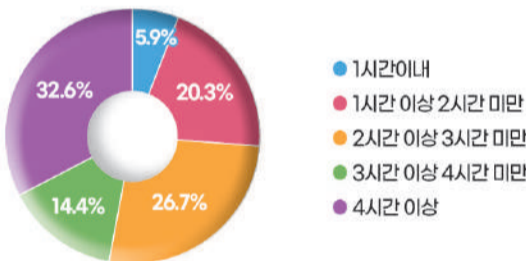
1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 19로 인해 청소년들의 바깥 활동이 크게 줄었다.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며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 청소년의 인터넷 의존도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의존도가 심각해 불안이나 우울감 등이 나타나는 위험 사용자군은 작년보다 13%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전자기기 사용방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과의존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전자기기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화성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1.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수업시간 제외) 전자기기 사용이 얼마나 늘었는가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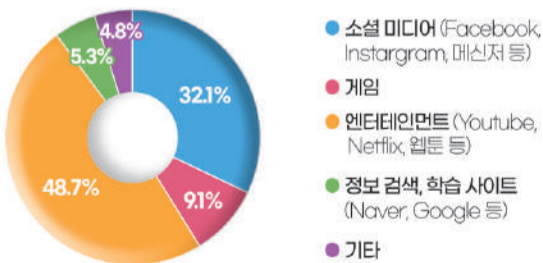


코로나 19로 전자기기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학생 또한 등교를 자제하고 전자기기를 통해 쌍방향 프로그램을 사용해 학교 수업을 듣는다. 관내 학생들에게 코로나 19 이후로 전자기기 사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변동이 없다는 의견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늘었다는 답변이 23%로 동일 확률을 보였다. 다음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22.5% 세 번째는 21.4%인 2시간 이상이었다. 코로나 19로 전자기기 이용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온라인 수업을 제외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전자기기 이용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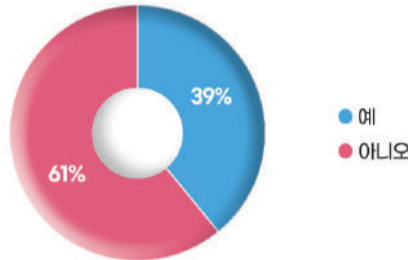


3.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테고리리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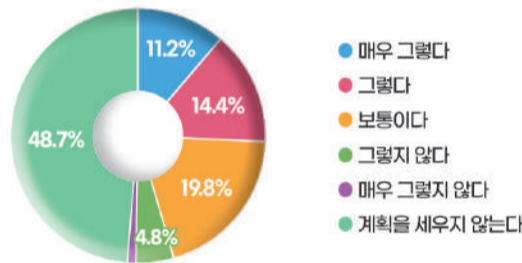


응답자 중 32.6%가 가장 높은 비율로 4시간 이상 전자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26.8%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사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1시간 미만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자기기를 2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반의 응답자가 전자기기를 이용할 때 유튜브, 넷플릭스, 웹툰 등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응답자가 전자기기를 통해 엔터테인먼트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 전자기기 사용 계획을 (사용량, 어플 제한) 세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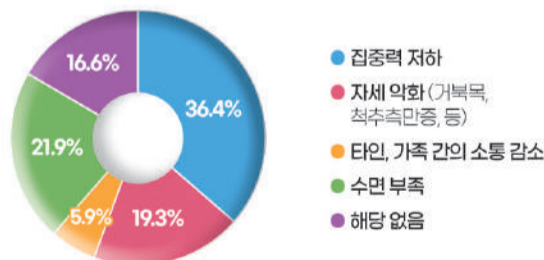


5. (4번에 예라고 답한 사람만) 전자기기 사용 계획을 실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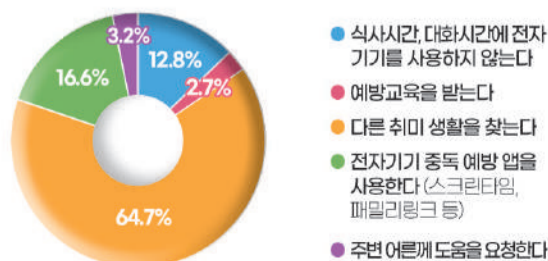


전자기기 사용 계획을 세우는가에 관해 물어본 결과 39%의 학생들이 전자기기 사용 계획을 세우고, 61%의 학생들이 세우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자기기 사용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학생들은 25.6% (매우 그렇다/그렇다)로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실천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제력 부족이 이유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자기기 생활 습관을 성찰하고 자신에게 효과적인 계획을 찾아 세울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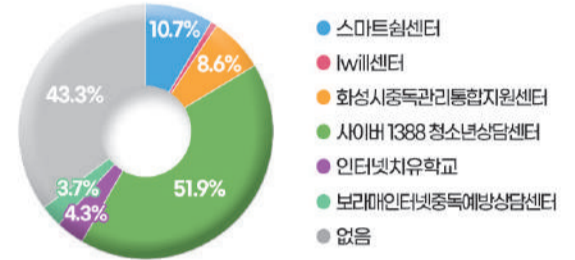
6. 전자기기 사용이 자신에게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7. 전자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8. 아래 기관 중 들어본 곳이 있는가? (복수선택 가능)



과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방 방법을 관내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결과 다른 취미 생활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64.7%로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앱을 사용한다는 의견이 16.6%를 차지하였다. 전자기기 중독 예방 앱은 스크린 타임, 패밀리 링크 등으로 시간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앱들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취약한 시간 조절 능력을 앱을 통해 도움받을 때 효과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은 가장 작은 효과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예방 교육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가장 익숙한 기관은 사이버 1388 청소년 상담 센터이다. 이는 사이버 1388에서 제공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의존 심리검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이트를 익숙하게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설문 결과로 볼 때, 현재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전자기기를 장시간 사용함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난 청소년들이 77%로 매우 많았다. 현재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 습관이 계속된다면 높은 전자기기 의존도를 넘어 스마트폰 과의존, 분노조절장애, 시력 악화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전자기기 사용방법을 알고 스스로 조절하려면 그에 대한 더 활발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기관은 '스마트쉼센터'이다. 스마트쉼센터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콜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친구 또는 가족 관계 등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이다. 상담 방법에는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센터 내방 상담, 가정방문 상담, 집단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이 가장 익숙한 기관이라고 답한 '1388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전자기기 사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올바른 전자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단지 교육뿐만이 아닌 모두의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자발적인 전자기기 사용 조절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명심하자.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은, 최시은, 이수빈, 배가은, 한연수 기자

특 | 교육부

GYEONGGI SCHOOL OF DREAMS

경기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

학교 밖에서 청소년의 꿈을 키워준다고?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마을과 학교를 넘나들며 주도적으로 배우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꿈의 대학·꿈의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꿈의 학교란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꿈의 학교를 통해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 실현을 위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며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경기 꿈의 학교는 경기도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꿈의 학교는 '스마트 팜 연구실 무럭무럭', '무형문화유산 생생 체험 꿈의 학교', '보컬의 신' 등이 있다. 꿈의 학교는 유형별로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다 함께 꿈의 학교로 나뉜다.

먼저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꿈의 학교를 기획, 운영하는 교육 활동이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비영리단체나 사회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꿈의 학교이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꿈의 학교는 경기도 내 기업과 청소년 단체들이 운영하는 꿈의 학교이다. 찾아가는 꿈의 학교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책 풍경 꿈의 학교 잡지 만들기'를 진행했던 꿈의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꿈의 학교가 더 많은 아이에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경기 꿈의 대학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대학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 중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는 학생 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꿈의 학교와는 달리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네일아트, 태권도, 영화, 토론, 마케팅, 웹툰 등 천여 개가 넘는 다양한 강좌들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대학 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의 지정 시설에서 수강한다.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하여 꿈의 대학을 수강한 한 학생과 인터뷰를 나누어보았다.

Q. 꿈의 대학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제가 희망하는 학과를 진학하기 전, 관련 직종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꿈의 대학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가 신청한 꿈의 대학은 학습계획이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어 주저 없이 신청했습니다.

Q. 꿈의 대학이 다른 진로 관련 프로그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A. 보통 다른 진로 프로그램은 하루, 일주일 등 단기간으로만 진행된다면 꿈의 대학은 한 학기 내내 진행된다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지만 함께 하는 선생님, 친구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다른 점 같습니다.

Q. 꿈의 대학 활동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신다면 어떤 점이 만족스러우셨나요?

A. 저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제가 수강한 꿈의 대학은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평소에는 쉽게 배울 수 없었던 경영의 세부 분야 (회계, 마케팅, 인사 등)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저희를 진정으로 위하했고, 제 진로나 학과에 대한 상담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경기 꿈의 대학과 꿈의 학교 모두 청소년들의 흥미 분야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희망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얻고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와 탐구를 통해 자기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다른 학교, 다른 학년의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 소통하며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해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 것은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 혹은 좋아하는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해보자.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최인서, 안혜원, 김주현, 김지연, 최희연 기자

청소년 자원봉사, 모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코로나 19로 인해 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요즘,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원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타 나이대에 비해 청소년 자원봉사의 참여율은 단연 1등인 데 반해, 자발성은 턱없이 낮다. 이는 많은 청소년이 자신들이 원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고입이나 대입 기준에 맞춘 의무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학교나 학원의 압박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 발표한 '최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율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11.9%, 호주 32%, 캐나다 58%인데 반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9.8%로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많지만, 그 시간과 횟수는 현저히 적다. 이는 청소년 자원봉사가 매우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정책 분석평가센터에서 발표한 청소년들이 봉사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1위(36%)는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 2위(31%)는 청소년들의 인식 부족, 3위(25%)는 적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부족, 4위(6%)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 부족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원봉

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었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부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매우 한정되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학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의무봉사 시간이 축소됐다. 경기도 대부분의 중학교는 기존 60시간이던 의무봉사시간이 15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만으로 봉사 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자원봉사를 알아보고 신청하여 직접 참여하는 등의 모든 과정이 사라진 것이다. 자원봉사는 단지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돌아보고 자신의 진로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소중한 밑받침이기에 코로나 19로 인한 의무봉사 시간 축소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다양성을 더욱 넓혀 청소년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9년 화성시에서는 '제 4회 화성시 자원봉사 봄 UP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체험프로그램으로 파트너쉽 강화, 나눔 UP, 고령화 사회극복, 교육역량 혁신, 빈곤 예방 및 해결, 남북통일, 사회 안전 및 범죄 예방, 여가문화, 인권·다문화·생명존중, 환경, SDGS(지속가능개발목표)10대 과제로 51개의 봉사 단체



가 운영됐다. 각각 봉사단체의 취지, 가입안내, 활동안내가 이루어졌으며 공익캠페인 활동 인증카드도 운영 중인 11개 부스 캠페인 참여시 봉사시간 4시간을 인증한 뒤 부여받는 활동으로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바람직한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를 넘어 지역과 전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자원봉사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발전과 보람을 위한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는 더욱더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은 기자

※ 사회부

바로알자,



화성시 청소년 무상교통 시스템



경제문제와 환경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화성시의 정책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2020년 11월부터 화성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이다. 이는 화성시가 세계 공동 목표인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중 하나다.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7세~18세의 청소년이라면 무상교통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1년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화성시는 향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상교통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 먼저 웹사이트에 '화성시 무상교통' 또는 '세이프 버스'를 검색해 회원가입을 한 후 카드발급을 신청한다. 실물카드는 주민등록번호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된다. 이 카드를 통해서만 무상교통 복지 이용이 가능하다. 발급된 카드의 카드번호를 홈페이지에 기재한 후, 충전이 가능한 곳에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분기마다 교통 요금에 정산되어 관내에서 이용한 요금은 다시 본인의 계좌로 들어오게 된다. 무상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은 화성시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하차 모두 화성시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같은 사업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화성시 시민들에게 무상교통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올해 김○○ 씨(화성시 청계동, 13세)는 먼 중학교에 배정 받게 되어 무상교통을 신청해 버스를 타게 되었다. 김○○ 씨는 자신의 교통비를 돌려받아 어느 때나 부담 없이 이용하게 되어 편리하다고 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은 화성시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무상교통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 시민 전○○ 씨(화성시 반송동, 22세)는 무상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교통혼잡도 감소하고 돈을 아껴 자신이 사고 싶은 것에 쓸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무상교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화성시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무상교통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무상교통을 통해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Q. 무상교통으로 인해 얻는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무상교통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지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환경오염 방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왜 청소년을 무상교통 복지 대상으로 선정하였나요?

A 청소년은 제약이 많은 나이이고, 청소년기의 대중교통 이용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화성시의 무상교통이 활성화되었지만, 아직 무상교통의 시행 이유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화성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정책이다. 앞으로 화성시의 계획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체인구로 무상교통 시스템을 확대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화성시는 무상교통 시스템으로 인해 예년 대비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이 2배 정도 늘었다. 화성시 이외에도 모든 시에서 무상교통을 활용해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길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윤수빈, 문성민, 양현진, 이태석 기자

떠오르는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앞으로의 방향은?



전동 킥보드는 이동의 편리성과 친환경적이라는 특징을 가져 최근 이용자가 2019년 37,294명에서 2021년 214,45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들이 생기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운전법 미숙 등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자동차 면허와 달리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가 되면 딸 수 있으며 자동차 면허를 따면 원동기 면허가 포함 되어 있다. 그 외에 2인 이상 탑승이 불가하며 헬멧을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불법 운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전동 킥보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 수는 연평균 약 90%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2년 만에 3배로 늘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차와 난 사고가 79.5%, 차와 사람의 사고가 14.0%, 단독 사고는 6.5%로 나타났다. 또 전동 킥보드로 인한 화재도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기 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78% 교통사고 5%, 원인미상 17%로 빈번히 발생하여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로교통부는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사고를 줄일 것이라고 한다. 화성시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곳에 주행 가능 구간과 대여와 반납 구역, 안전 수칙을 명시 해놓았으며 일부 자전거 도로에서 탑승을 허가 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을 하기 위해 교육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에선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 및 탑승 시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 킥보드를 구매 하거나 사용할 시 안전 교육을 하는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 탑승 시 안전모를 부착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쓸 수 있게 만들자는 이용자의 의견도 늘어

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 본인이 안전 수칙과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대부분 사람들의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모여 생긴 사례들이 많다. 보통의 사람들은 교통사고나 화재로 인한 사고들이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의 사고 사례와 안전 수칙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러한 사고들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훗날엔 꼭 필요한 안전한 간편 이동 수단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박다인 기자

생명과 기업 이윤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생긴 대립



지난 2018년, 20대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연료 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의 인력수급 문제로 혼자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며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하지만 계속된 산업재해 사건으로 2020년 11월 고 김용균씨의 유가족이 천만서명과 단식 농성을 했다. 그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던 기업에 책임을 묻는 처벌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들이 계속 안전비용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22일,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이선호씨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선호씨의 죽음 이후,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인 '동방' 평택지사를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17건이나 확인된 것이다. 당시 이선호씨의 작업은 현행법상 고가의 전문장비로 진행되어야 했지만 지게차로 진행되고 있었다. 더욱이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무전기 컨테이너와 대형화물 작업을 돕는 신호수도 없었다. 사업주가 인권비와 안전 비용을 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 또는 기관에는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이는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형벌이 세진 법이다. 그러나 시행령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했다. 노동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처벌 범위가 축소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법 적용이 유예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 중 80%이며 이곳에는 일하는 노동자만 약 300만 명으로 여기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의 약 30%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김형렬 총무이사는 "중대재해법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조치를 어긴 위법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만 문제 삼는 법"이라며 "이를 왜곡해 마치 모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처벌받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2016년 드라마 '혼술남녀' 촬영 현장에서 일했던 신입 PD 이한빛씨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과도한 업무 등을 고발하며 드라마 종영 이틀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 이한빛씨의 유가족은 "우리는 누구나 일을 하고 살아가는 노동자이며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생략) 노동자가 되든, 하도급 업주가 되든, 대기업 사장이 되든 생명이 이윤보다 앞서야 한다는 가치관이 확립돼 있으면 지금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일은 사라질 거로 생각해요"라고 전했다.

한 해 약 2,400명, 하루 6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젊은 목숨을 잃는 비극이 언제까지 되풀이돼야 한단 말인가. 기업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 소속 직원들뿐 아니라 영세 하청업체 직원에게도 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노동자와 자신 모두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수빈 기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픔 없는 세상을 위한 예방법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학부모와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자 신고는 전국적으로 센터마다 한 달에 150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일 년에 약 3,000~4,000여 건의 아동학대가 처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 보고서 2019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 아동 중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피해자의 비율이 23%를 차지하고 그 중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는 3%를 차지한다. 5월 25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A 씨가 원생 B 군의 목을 잡고 12분간 억지로 7잔의 물을 마시게 했다. 또 교사 A씨는 강제로 아이들에게 "너희는 나쁜 아이"라며 스스로 머리를 때리게 협박했다고 한다. CCTV를 살펴보니 40명 이상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6월

10일 한 달 사이에 울산에서도 3세 남아를 학대한 사건이 나왔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해결의 첫 번째 방안은 국민청원이다. "국민청원이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모토로 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2017년에 신설된 게시판이다. 청원 글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한 학부모들의 심정을 알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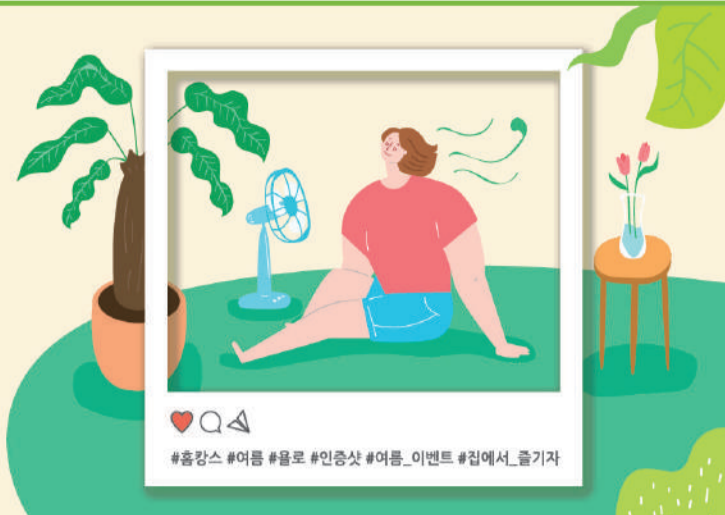
현행법상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고 신체적 고통과 함께 피해아동의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를 기르지 않거나 아직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양진재 기자

문화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문화



코로나 19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등교수업보다 원격수업이 더욱더 자연스러워졌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 어색할 정도이다. 문화생활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무산이 그 예이다. 이전이었다면 가슴 설레고 신나는 소식으로 여겨졌을 올림픽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연 코로나 19이다. 전 세계에서 물러들어 합숙 생활을 하게 될 선수들 사이의 방역 문제에 대한 걱정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코로나 19로 우리의 문화가 침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변화하는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로 소개할 문화는 방역 지침에 의해 오프라인 콘서트를 대신하여 실시된 온라인 콘서트 문화이다. 이를 온택트(ontact) 콘서트라고 한다. '온택트(ontact)'는 비대면의 'untact'와 온라인 연결을 의미하는 'on'을 결합한 신조어로, 온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나는 방식을 뜻한다. 이전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공연장에서 거리가 먼 나라의 팬들은 직접 방문하여 관람해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했다. 온라인 콘서트는 온라인 연결이다 보니 현장감이 부족하지만,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어 대규모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같은 돈을 내지만 앉은 자리에 따라 콘서트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팬들은 매표에 대한 경쟁심이 만발했었다. 하지만 온라인 콘서트는 한정되거나 정해진 자리가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관람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 사람들의 머리에 가려지지 않고 원하는 카메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온라인 콘서트의 시작은 자

선 콘서트인 '원 월드: 투게더 앳 홈(One World: Together at Home)'인데, 2020년 4월 18일에 운영된 콘서트로 코로나 19에 힘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8시간 동안 약 60팀이 공연을 마쳤고 1억 2,800만 달러의 기부금이 모였다. 이어서 '방방콘(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ropolitan Opera)' 등 코로나 19로 중단된 공연이 점차 색다른 방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문화는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사에서 내놓은 '무목적 비행'이다. 무목적 비행이란 코로나 19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입국 수속을 마치고 착륙 없이 유턴해 돌아오는 비행을 말한다. 실제로 목적지에 착륙해 관광할 수는 없고 오직 하늘에서의 관광 비행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기내식과 다양한 이벤트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행업계는 대만과 일본 등 해외에서 일시적인 상품으로 준비한 무목적 비행이 인기를 끌자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하나투어와 아시아나항공은 협업하여 A380 항공기를 이용하는 무목적 비행 상품인 '스카이라인투어'를 선보였고 이는 엄청난 인기를 끌어 총 320석 중 응급환자용 좌석을 제외한 284석이 모두 당일 완판됐다. 이 소식에 다른 여행 플랫폼인 KRT와 마이리얼트립도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를 이용한 '스카이드림투어'와 '여행 앞이 극복 프로젝트'라는 한반도 일주 무목적 비행 상품을 출시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비행기를 이륙시키지 않고도 비행 여행을 즐기는 상품을 출시했다. 작년 싱가포르항공은 공항에 머물러있는 비행기에서 3시간 동안 기내식만 먹는 일정의

상품을 30분 만에 완판 시켰다. 한편 무목적 비행 여행 상품은 내수 활성화에 사실상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탄소배출 행위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무목적 비행인 자칫 여행 산업을 무너트릴 수 있으며 면세품 구매를 허용할 시 비행 상품에서 면세품 구매로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비행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문화는 시간이 집에 꼭 박혀 있다는 뜻 가진 집콕 문화이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쉽지 않다 보니 집콕이 일상화됐다. 외출이 어려워져 집콕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의 활동이 생기고 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의 시청이 활발해졌고, 집에서 캠핑하거나 수영장을 만드는 등의 재미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코로나 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마트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자, 인터넷으로 음식과 의류 용품을 사게 되는 인터넷 쇼핑도 활성화가 됐다.

위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문화 외에도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란 뜻의 '호캉스', zoom으로 만든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는 'zoom 독서실', 집에서 카페 음식을 만들어보는 '홈카페' 등 새로운 문화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콘서트, 무목적 비행, 집콕 문화 등에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코로나 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문화를 다 함께 즐겨보자.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무원, 김세빈, 김태민, 이유하 기자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로 여행을 떠나볼까?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어 마스크와 코로나 방역수칙이 일상화된 요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 방역수칙은 지키되 안전하게 여행할 만한 곳으로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를 추천한다.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이하 공룡알화석지)는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생대 백악기 퇴적층에서 대량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곳이다. 공룡알화석지는 천연기념물 제 414호로 지정되었다. 상업 및 연구 가치가 풍부한 종 중 하나인 트리케라톱스 알의 파생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존 고고학계에서도 큰 변화를 준 장소이다. 세계에서는 공룡발자국을 중심으로 학문이 발달하였으나, 희귀 알이 집중적으로 밀집된 공룡알 화석지가 주목되며 세계 학술의 판도를 뒤집은 것이다. 공룡알 화석의 발견은 한반도를 세계적인 공룡 화석지로 전세계에 알

리는 계기가 되었다. 공룡알 화석지는 공룡이 살았던 당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낮은 지형으로, 공룡은 이곳의 호수와 강에서 서식하며 알을 낳고 번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룡알 화석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드넓은 평지가 갈대밭으로 펼쳐져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지형임을 고려해 볼 때 사방이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고귀한 장소이다. 또한 도보자가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테크가 설치되어 있어 관람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화성시는 공룡알 화석지를 고장의 산물로 선정했다. 2008년 화성시 전곡리에서 발견한 트리케라톱스 화석의 발견으로 화성시의 마스코트인 코리요가 탄생했다. 코리요는 랜드마크 및 테마파크 조성에 큰 활약을 한 상징물로 통하고 있다. 귀여운 외모와 공룡의 뼈를 형상화한 캐릭터가 거대한 인기

를 끌면서 2차 창작 및 코리요 세계관 구축까지 성공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모두가 평범한 하루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려면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자제해야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자연과의 힐링이 절실한 시기이다. 2020년 3월, 김우주 고려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 통계를 발표했다. 코로나 블루를 겪는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 해결책 도출을 생각했고 이와 같은 문제는 야외 활동을 통하여 회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김교수는 위기를 긍정으로 즉, 내면의 에너지를 승화시킨다면 우울감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극복과 재미,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공룡알 화석지를 여행지로 추천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문성민 기자

🎮 | 스포츠연예부

온라인과 스포츠의 만남, e스포츠



단순 취미를 넘어 세계로 진출한 e스포츠, 얼마나 알고 있는가? e스포츠는 전자 스포츠란 뜻으로,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를 일컫는 말이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일반적인 스포츠와 달리 육체적인 능력보다는 정신적인 능력을 위주로 펼쳐 나가기 때문에 정신 스포츠로 분류되며 컴퓨터와 비디오로 경쟁하는 스포츠다.

이런 e스포츠의 시초는 1972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개최된 최초의 비디오 게임 대회 '스페이스 워'이다. 1990년대 PC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e스포츠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서 2020년 진로 현황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5위는 프로그래머가 차지했다. 그 이유는 학교와 학원 일정으로 바쁜 학생들이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취미가 게임이기에 학생들이 게임에 관심을 많이 쏟기 때문이다. 게임으로 인해 그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의 짜릿함과 실패했을 때 원인을 연구해 스스로 실패를 극복 하는 법을 알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게임으로 배움을 얻으면 학생

들의 만족감이 높아진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스포츠이다 보니 요즘은 학교 대회들을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하는 청소년 e스포츠 대회도 개최되고 있다.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라남도 순천시가 6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e스포츠 대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무기력한 청소년들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대학생들을 위한 e스포츠 대회도 개최됐다. e스포츠 대학 리그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e스포츠 대학 리그로써 e스포츠 산업기반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재 육성을 위한 e스포츠 학과도 생기고 있다. e스포츠 학과가 있는 학교로는 전남과학대학교와 호남대학교 등이 있다.

e스포츠 세계권 대회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프로그래머와 같은 e스포츠 관련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e스포츠 관련 직업에는 프로그래머, 선수들의 정신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멘탈 코치, 게임 전략을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코치 등이 있다.

그럼, e스포츠에 대한 화성시 청소년들의 인식은 어떻게?

전반적인 인식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현실적인 스포츠를 실제로 하는듯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과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e스포츠 게임 경험담으로는 “축구 하고 싶은 마음을 게임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스포츠 경기를 본 청소년들은 “e스포츠 대회 경기가 지루할 줄 알았지만, 해설진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몰입감이 높았다.”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 재미있게 봤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의견들을 말했다.

앞으로 e스포츠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된다면 e스포츠는 그냥 게임이 아닌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변화시킬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박다인, 김시연, 손예준, 양진재 기자

배우 윤여정의 오스카 여우조연상이 특별한 이유는?



배우 윤여정이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2021년 4월 25일 미국에서 열린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받게 되었다. 배우 윤여정은 드라마 “미스터 공”을 시작으로 데뷔한 지 약 56년이 되었다. 긴 연기 생활을 해온 배우이며 오랜 연기 생활 끝에 대한민국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수상은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특별했다. 그녀는 혼자 아들 두 명을 키우면서 연기 생활을 하며 힘든 삶을 살았다. 그 이유는 가수 조영남과 결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했는데 배우로서의 인생과 내적 갈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혼을 했고 아들 둘을 혼자 키웠다. 이번 수상 소감에서 트로피를 높이 들어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보답이다.”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수상 소감 때 후보에 함께 오른 배우들에게 “우리는 다른 영화에서 다른 역할을 맡았을 뿐 서로 경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을 받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던 배우 아만다 사이프리트가 윤여정의 말에 동감하며 눈물을 삼키는 장면은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

이번 수상은 기생충과 더불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영화가 얼마나 다른 나라들 못지않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수상은 여배우들에게도 특별했다. 모두에게 대선배였던 배우 윤여정의 수상은 주목받지 못하는 여배우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되었다. 이전까지 스크린에서 여배우들은 캐스팅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고 출연해도 소비 대상으로 다룬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상과 작년 기생충의 수상을 계기로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인식이 예찬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숭실대학교 영상 미디어 학과 출신 김정은 교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대한민국 영화의 획기적인 도약의 발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영화가

많이 기획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윤여정 배우의 연기 특징과 매력도 극찬을 받고 있다. 김정은 교수는 “윤여정 배우가 전작들의 가면을 복제하여 재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다른 말로 배우 자신을 버리는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배우 여유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카리스마를 발산한다”고 했다. 체구는 작지만 배포가 크고 용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윤여정의 수상은 여자 배우들이 남자 배우들에 비해 수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인정을 크게 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변화시켜주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여자 배우들에게도 의미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게 예술적으로 인정받은 나라이다. 이런 더 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무원 기자

플라스틱의 배신과 플라스틱 방앗간

서울 환경연합의 색다른 환경시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서울 환경연합은 플라스틱 방앗간을 만들어 환경문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1.5억 톤에 육박한다. 바다에 배출된 쓰레기는 태평양에 한반도 면적의 약 7배인 쓰레기 섬을 형성하였다. 쓰레기 섬은 바다의 수질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위협한다. 특히나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매우 작아 동물들이 삼키는 일들도 빈번히 발생한다.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결국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또한, 플라스틱은 다량의 메탄가스와 에틸렌을 방출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분리수거를 한 플라스틱은 모두 재활용이 된다고 알려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플라스틱의 선별과정에서는 PE,PP,PET 등 재질에 따라 분리가 된다. 하지만 병뚜껑과 같이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과정에서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되지 않는다. 결국, 작은 플라스틱은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분리 배출량에

비해 재활용량이 적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플라스틱 방앗간은 플라스틱을 이용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공간이다. 플라스틱 방앗간에서는 작은 플라스틱을 잘게 부순 후,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다. 플라스틱을 분쇄기에 잘게 간 후, 플라스틱을 녹여 몰드에 넣고 제품을 만들어낸다. 플라스틱 방앗간에서는 작은 플라스틱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앗간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치약 짜개, 카라비너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플라스틱 방앗간에서는 '참새클럽'을 모집하고 있다. '참새클럽'은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주최하는 클럽으로 두 달동안 모은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방앗간에 보낸다. 플라스틱 방앗간에서는 이를 이용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참새클럽에게 보내준다. 참새클럽에 가입하면 직접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직접 받아볼 수 있어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환경연합 활동가 이모 씨는 "플라스틱 방앗간이 모든 동네에 생기는 것이 꿈이다. 플라스틱도 하나의 자원으로

로 사용할 수 있으니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플라스틱을 이용한 제품을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플라스틱 방앗간을 직접 운영하고, 이 모델을 전파해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 힘쓰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배달음식 이용이 증가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방법을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하여 플라스틱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플라스틱 방앗간과 같은 환경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윤수빈 기자

이런 세금이 있다고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색 세금

우리나라 온실가스가 1999에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는 약 5천ppm이 증가했고 메탄은 약 2만ppb이 증가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및 여러 나라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고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법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효과적이고 특이한 방법은 세금이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인데, 이 세금을 환경오염 방지 방법에 적용한 것이다. 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색 세금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이색 세금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입도세'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국내인 제주도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제주도에 관광객 수가 급격히 늘면서 버리는 쓰레기 양이 늘거나, 차가 많아 대기오염이 되는 등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주도는 관광객들에게 '입도세'를 걷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광객 숙박 시 하루기준 렌터카 1대당 5,000원, 숙박업소는 1인당 1,500원 등을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세금이 도입되면 제주도의 환경오염 진행속도는 줄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이색 세금은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 젓가락세'이다.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품에 세금 5%를 부과한 것이다.

매년 중국은 약 450억 쌍의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만든다. 이 많은 양의 젓가락을 생산하려면 약 2천 5백만 그루의 나무를 파괴해야 하는데, 이에 중국 정부는 심각한 환경 파괴와 중국 사막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막대한 목재 수입에 큰돈을 지출하게 되자 세금 징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이색 세금은 독일의 '빗물세'이다.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콘크리트 등의 면적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불투수 면적(물이 스며들지 않는 면적)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빗물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논의한바 있다. 빗물세 도입 후에 독일에서는 빗물세를 감면받기 위해 빗물 저류 및 침투 시설을 설치하고, 빗물을 재활용하는 식물 재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수도 요금과 수도물 사용량을 줄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네 번째 이색 세금은 에스토니아와 덴마크의 '방귀세'이다. 에스토니아는 2009년부터 소를 키우는 목장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방귀세를 걷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 중 하나가 온실효과인데, 2006년 UN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온실가스의 18%가 가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밝혔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은 약 200L이다. 메탄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23배나 강한 온실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체 메탄가스 배출량의 25% 정도를



소가 배출하고 있어 세를 걷는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이색 세금은 영국의 '라떼세'이다. 라떼세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돈을 더 받는 것이다. 영국은 매일 일회용 커피컵을 약 800만 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 비율은 약 1% 미만에 불과했다. 영국 위원회는 라떼세 부과와 더불어 일회용 커피컵에 재활용 가능 로고를 더 부각하고 5년 안에 모든 커피 컵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영국 정책 입안자들은 일회용 커피 컵 사용에 최고 약 230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의 자동차 주행 부가세, 스위스의 탄소세 등 세상에 정말 다양하고 특이한 세금이 많다. 이 세금들의 이름만 들으면 웃기고 황당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환경 보전을 위한 나라들의 특별한 노력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소비가 환경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환경오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한연수 기자



비만에 노출된 청소년, 이대로 괜찮을까?

코로나 19가 불러온 청소년 비만 악화와 해결방안



코로나 19 유행으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비만인 청소년의 수가 늘었다. 코로나 19 유행 전부터 화두가 되었던 청소년 비만 문제가 코로나 19 유행으로 더 악화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최소 두 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한 만 6세에서 18세 사이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평균 체중은 등교 중지 이전 67.2kg에서 등교 중지 이후 71.1kg으로 약 4kg 증가하였으며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인 BMI 또한 26.7에서 27.7로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총콜레스테롤 지수는 160.3mg/dl에서 169.5mg/dl, 중성 지방은 126.7mg/dl에서 160.6mg/dl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연구팀은 “등교 중지 이후 바깥 활동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탓에 비만 지표가 악화하였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비만을 방지하게 되면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등의 성인병 증상이 일찍 나타날 수 있고 재발 우려도 높아 만성질환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성조숙증의 발병으로 성장판이 조기에 닫힐 수 있으며 열등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학업·교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만 방치가 아닌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 비만 치료가 쉽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특효약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개인 스스로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영준 교수는 “아동·청소년에게 쓸 수 있는 비만약이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소아·청소년 비만은 ‘식이요법’과 ‘운동’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조언했다. 식이요법은 갑작스럽게 먹는 양을 줄이기보다는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푸드가 아닌 영양소가 고루 갖추어진 식사를 해야 한다. 또한 아침을 바쁘게 보내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점심과 저녁의 과식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운동은 매일 1시간 이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도 좋으며 주말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지원이 필요하다. 고려대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교수는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공공 체육시설을 늘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소아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소아 청소년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진행 사례에는 서울시 영등포구가 있다. 영등포구는 2018년부터 청소년 비만 예방 사업을

추진했다. 영등포구 비만 예방 사업에는 ‘굿모닝 워킹 스쿨’, ‘ICAAN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코로나의 장기화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굿모닝 워킹 스쿨은 매일 아침 걷는 프로그램이고, ICAAN 프로젝트는 비만 관련 평가와 1:1 전문의 상담, 생활 습관 교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만 예방 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신체활동 콘텐츠 제작, 가정용 운동 자료를 배포하는 등 비대면 방식의 사업 운영에도 힘썼다. 화성시 또한 과거 청소년 비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2009년 ‘청소년 식습관 생활습관 교육’ 중 비만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는 교육을 진행하였고 2014년 ‘어린이 비만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과거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던 것처럼 청소년 비만 문제가 심각한 지금 다시 청소년 비만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비만인 청소년이 늘어나 건강이 적신호를 띄고 있다. 청소년 비만은 다양한 질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청소년 비만 문제가 심각한 지금, 청소년 비만을 위한 사업을 재기할 필요가 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최인서 기자



장애인 복지, 아직도 부족하다?

장애인 복지 선진국을 향하여



매년 학교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뉴스를 보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작은 원 모양으로 수화 통역사가 나온다. 모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을 보면 OECD 평균은 21%이지만 한국은 10.4%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복지서비스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2021년 4월 19일 발표한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등록 장애인은 약 263만 3,000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5.1% 수준이다. 이는 2019년 말(261만 8,000명) 대비 약 1만 4,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간의 차이점은 시설의 다양성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령에 근거하는데, 대체로 지역사회시설과 생활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시설로는 생활 시설이나 요양 시설, 영유아 시설 정도로 종류나

그 수가 많지 않다. 하지만 선진국의 시설은 이것보다 더 다양하다. 선진국은 중증 요양 시설, 대형 주거시설, 중소형 주거시설, 공동생활 가정인 소형 그룹홈 등 장애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립 생활센터(IL 센터)와 달리 선진국의 자립 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나라는 주로 장애인의 주거나 이동, 의사소통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체육활동, 사교활동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보통 장애인 시설에서 하루를 보내지만 선진국의 장애인은 일을 하거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반이라는 반이 따로 존재한다. 하지만 핀란드는 장애인 학생들이 경험하는 특정 교과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확인하고 지원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은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식의 분리가 아니라 모두 일반교육의 일환으로 본다.

박위 씨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그는 장애인의 외부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없다고 한다. 장애인 복지 정책이 많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2020년 9월 기준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28%에 불과하고 휠체어를 위한 경사도가 부족한 상점도 여전히 많다. 위라클 채널의 영상 중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계신 한 교민분의 인터뷰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장애인은 우리와 조금 다른 존재일 뿐이다’라고 배우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의료나 교육 훈련, 고용 증진 등을 도모하는 서비스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유하 기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직업



데이터 분석가 노화 방지 매니저 정밀 농업 기술자

전문가들은 노화에 맞서는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지금의 청소년들은 100세 시대를 살 것으로 추측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따라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주로 한다. 성인이 되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가장 큰 과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미래의 자신을 그리는 것은 설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막연하기에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부합하고 미래에 유망한 직업들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데이터 분석가가 있다. 데이터란 이론을 세우고 기초가 되는 사실과 바탕이 되는 자료 관찰이나 통계를 통해 얻은 사실 정보를 말한다. 데이터 분석가는 이러한 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해석과 통찰을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의 최선의 의사결정을 돕고 성과를 예측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분석 모형 및 통계 지식과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엔지니어링 능력, 수학적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다양한 차원에서 사실을 정의하고 미래에 부합하는 스토리를 엮어야 한다. 그저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닌 사람의 감정 혹은 심리나 의지 또한 생각하여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세

워야 한다. 기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숫자들을 보기 쉽게 도와주는 데이터 분석가는 앞으로의 상황들을 내다보는 능력을 갖췄기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화도 방지해야 한다. 피부의 주름인 외적인 노화와 같이 우리의 몸속 장기가 오랫동안 사용됨에 따라 기능도 저하되기 일쑤이다. 바이오 기술은 현재 대중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의학과 바이오 기술 발전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녀 구분 없이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화 방지 매니저라는 직업은 미용과 건강을 동시에 생각하는 직업으로 수명이 길어진 고령화 시대에서 주목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밀농업 기술자가 있다. 우리는 농업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래를 내다본 전문가들은 2050년 100억에 이른 인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한국의 식량 자급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마냥 토지가 작다고 하는 것은 핑계이다. 유럽에 우리나라보다 작은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는 식량안보가 국가안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기에 곡물 자급률을 늘리고 있다. 우리는 안전한 식량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하지만

수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식량을 갖출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에 식량 자급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또한, 곡물의 값이 폭등한다면 국가에 타격을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는 지금 필수적인 식자재는 많은 인구를 먹일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밀농업 기술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지리 정보체계(GIS), 인공위성 자동위치 시스템(GPS) 와 같은 지구과학 기술을 이용한 정보를 가지고 농사 현장에서 토양, 생육, 기후 정보를 연구한다. 최상의 농산물 상태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농자재 투입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생각하여 과학적인 농사를 연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다소 쇠퇴되고 있지만, 과학적 접근을 둔 농업에 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구환경에 뒷받침하는 과학기술과 작물생산을 동시에 하기에 유망한 직업이 될 것이다.

미래 전망이 밝은 직업들은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관심을 두는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최시은 기자



동북공정을 아시나요?

동북공정에서 역사와 문화 왜곡으로 이어진 연결선



중국의 동북공정은 2002년 2월 28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지금까지 이슈화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을 축약한 것으로,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사지연구센터가 동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시행된 중국 정부 프로젝트이다. 이는 중국의 변강을 안정시키고 다민족들을 단합 시켜 중국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까지 약 5년 동안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중국은 청나라 영토에 있는 동북방인 만주가 처음부터 중국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는 정부 중심 도시의 역사 왜곡을 시도하면서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다.

처음 동북공정을 게시했을 때, 그들이 연구한 결과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역사를 오전하기 시작했고 점차 한국의 문화나 사람을 중국의 것이라고 내세웠다. 2020년 1월 3일, 중국의

UN 대사가 김장하는 모습을 SNS에 게시했고 이어 2020년 1월 9일에 한 중국 유투버가 김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려 해시태그로 '#중국전통 요리'라고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그들이 김치가 그들의 전통음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수출량에 큰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29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인 화춘잉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김치가 파오차이와 비슷하여 김치의 원조라고 선언해 논란이 됐다.

최근에 상영된 드라마 '여신강림'에도 중국의 여러 브랜드 PPL이 등장하여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거부감을 주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자랑스럽다', '중국의 힘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이 중국 드라마와 모바일 게임 페이퍼게임즈에서 등장하면서 중국 이용자들이 한복은 명나라의 '한푸'나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라고 내세웠다. 모바일 게임 'SKY-빛의 아이들'에서도 한국의 것과 유사하게 적용된 아이템으로 중국 이용자들이

반발했다. 이에 개발사의 대표 제노바 첸이 '중국 문화는 전 아시아의 문화에 영향을 줬다'라며 '이번 모자 아이템도 송대와 명대의 모자를 디자인의 원천으로 삼았으며 이외에 중국의 많은 요소를 참고했다'고 공지했다.

공석구 한밭대 교수는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중국의 고구려·발해 역사 빼앗기 시도인 동북공정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뺏기지 않으려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당부했다. 우리는 선조들이 옹호한 소중한 역사를 보존함으로써 이후의 시대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아울러 동북공정을 알고, 중국의 정부가 역사 왜곡에 관해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를 정확하게 터득하여 오전된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세빈 기자

공기청정기

잘못 알면 역효과를 불러온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공기청정기를 가까이 두고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공기청정기 사용 시 공기청정기에 가까울수록 공기가 더 안 좋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5월 5일 SBS 뉴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주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공기청정기에서 멀리 있는 곳 농도보다 더 높게 나왔다.

공기청정기는 안 좋은 공기를 빨아들이고 먼지를 걸러내서 정화된 공기를 내뿜는다. 실험 결과, 공기청정기를 틀자 공기청정기 주변으로 농도가 높은 공기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멀리 있는 곳에서는 농도가 낮음으로 유지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학교는 공기청정기가 교실 앞쪽이나 뒤쪽에 달려있다. 실험 결과 공기청정기에서 먼 자리에 있는 곳은 30분이 지나자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공기청정기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자리는 1시간이 지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기청정기는 주변 먼지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주변이 다른 곳보다 오염도가 더 높다. 대부분 많은 사람은 공기청정기에서 정화된 공기가 나오니까 가까이 있으면 정화된 공기를 빨리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기청정기 주변은 오염도가 높은 것이다. 김포대 환경연구보건소장은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공기청정기가 뒤에 있으면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공기청정기 가까이에서 오염도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간대 별로 사용 장소를 옮겨가며 1시간씩 가동해주는 것이다. 공기청정기를 한 곳에서만 가동하게 되면 그 주위 공기만 나빠지게 된다. 하지만 사용 장소를 옮겨가

면서 가동해주면 골고루 공기가 청정된다. 따라서 공기청정기에 가까이 있으면 정화된 공기가 아닌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된다.

우리는 정화된 공기를 빨리 마시려고 공기청정기 가까이에 있었지만 알고 보면 오염된 공기를 잔뜩 마셨다. 혹시 지금 공기청정기를 가까이에 두고 있다면 자주 공기청정기 위치를 바꾸어 정화된 공기를 마시길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배가은 기자



화재 현장에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입는 옷, 바로 방화복이다. 소방관들의 방화복으로 만든 가방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여기 119REO 라는 기업이 있다. 소방관 방화복은 3년을 입으면 안전성이 떨어져 폐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버려지는 방화복을 모아 업사이클링을 통해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다. 한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현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기업이 되고 있다.

119REO에서는 가방을 주로 제작한다. 방화복을 전달받은 뒤 깨끗이 세척 과정을 거친다. 원단으로 쓸 수 있게끔 분해하고 가방의 형태로 제봉하면 예쁜 가방이 완성된다. 이 모든 과정은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만들어

진 가방은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디자인이 멋진 뿐만 아니라 값지고 의미 있는 일 같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119REO는 사회적 기업으로써 기부도 진행하고 있다. 판매로 인해 발생 수익의 50%가 암 투병 소방관들에게 기부된다. WHO LARC(국제암연구협회)에서 소방관을 발암 업무 직군으로 분류할 만큼 소방관은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그럼에도 암 투병 소방관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암은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인 탓에 공무 중에 다친 것인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9REO의 대표 이승우는 "소방관이 우리를 구하듯이 우리도 함께 구한다. 라는 의미였고 'Rescue Each Other'

R.E.O. 첫 글자를 따서 119 REO 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라며 설명했다. 또한 "이 제품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소방관들의 현장의 노고를 이겨냈던 제품이라는 것들. 그것을 갖고 다님으로써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동시에 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보자.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주현 기자



그린나라 24호

- ◎ 발행기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편집집 청소년정책팀

화성시청소년기자단 13기

박다인(남양고), 최인서(병점고2), 김무원(동탄중3), 김시연(동탄중3), 손예준(방교중3), 윤수빈(화성동화중3), 이재은(반송중3), 최시은(동탄중3), 김세빈(방교중2), 안혜원(솔빛중2), 이수빈(이산중2), 김주현(동탄중1), 김지연(이산중1), 김태민(한백중1), 문성민(반송중1), 배가은(푸른중1), 양진재(능동중1), 양현진(반송중1), 이유하(푸른중1), 이태석(동탄중1), 최희연(안화중1), 한연수(푸른중1)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5
모두누림센터

<https://www.hswf.or.kr>